

## 남 북 협 력 동 향

(2004.10.1 ~ 12.31)

### ■ 정부, 신뢰·평화·실용·참여의 ‘대북정책 4대 방향’ 발표(10.4)

-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‘대북정책 4대 방향’을 발표
  - 신뢰 : 장성급 군사회담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 구축
  - 평화 :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핵 해결 이후 대북지원 방안 준비
  - 실용 : 경제협력관계의 발전과 남북간 합의 실천하는 대화문화 정착
  - 참여 :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정책 추진

### ■ WFP, 북한의 식량배급 2년 만에 정상화 전망(10.4)

- WFP(세계식량계획)는 북한이 10월 중순부터 2005년 초까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배급 대상 650만명에 대한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  - 러시아,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으로 식량사정이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

### ■ 정부, ‘개성공단 사업지원단’ 및 ‘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’ 설치(10.5)

-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 ‘개성공단 사업지원단’을 통일부 소속으로 설치
  - 대북 협의,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제도 마련, 물자 반출, 기반시설 건설 등을 지원
- 정부는 남북한간 직교역 지원을 위해 ‘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’를 통일부 소속으로 설치
  - 대북 교역·투자 알선 및 상담, 교역당사자간 연락 지원, 교역상품전시회 등의 추진·지원, 경제협력관련 방북인원의 편의 제공 등을 담당하며 개성공단 개발사무소내 입주

## ■ 동·서해지구 남북 군사실무책임자 접촉(10.7)

- 남북은 10월 7일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 갖고 경의·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시 인원·차량의 통행시간 준수 등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교환(국방부)
- 지난 7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월선 여파로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무산 이후 3개월여 만에 군당국간 접촉

## ■ 북한, 「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」 및 「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규정」 발표(10.11)

-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월 21일 「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」 및 「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」을 채택하였다고 발표(조선중앙통신)
  - 「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」에서는 의무 가입 보험대상으로 화재·폭발·자연재해로 인한 건물·기계장치의 손해, 교통사고, 산업재해 등을 규정하였으며, 보험사업자는 북한의 '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'이 지정한 '공업지구 보험회사'로 제한(위반시 벌금 최고 1만 달러)
- 「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규정」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의 취득 및 매매·양도·증여·상속·저당권 설정 등을 허용

## ■ 미국, '북한인권법' 발효(10.18)

- 북한내 인권개선 지원, 북한이탈주민 및 망명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북한인권법'이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

## ■ 1~9월중 남북교역 전년동기 대비 3.3% 감소

- 올해 1~9월중 남북교역액은 493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.3% 감소(통일부)
  - 반입액은 177백만 달러(8.6% 감소), 반출액은 316백만 달러(0.1% 감소)이며, 비거래성 교역(249백만 달러, 15.3% 증가)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109백만 달러 흑자
  - 남북교역 업체는 404개(위탁가공업체 109개), 품목수는 580개(위탁가공교역 품목 163개)
- 남북교역의 감소는 국내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섬유류를 비롯한 위탁가공교역이 감소하였고 북한의 남한 교역업체 방북제한 등으로 교역상담이 부진한 데 기인

## ■ 1~9월중 남북한간 선박운항 및 해상물동량 전년동기 대비 5.6%, 34.1% 감소

- 올해 1~9월중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 1,209회로 전년동기 대비 5.6% 감소하였고 물동량은 460,892톤으로 34.1% 감소(통일부)
- 선박운항 횟수는 금강산 관광이 육로관광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였고, 물동량은 식량차관(10만톤)을 비롯한 대북지원물자의 육로수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

## ■ 정부, 개성공단 시범단지 2개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(10.19)

-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선정기업 15개 중 2개 업체의 협력사업을 추가 승인
  - (주)로만손(시계) 및 (주)TS정밀(반도체)로 총 투자금액은 184억원, 분양면적은 4,247평
- ※ 협력사업 승인 기업 : 13개(문창기업(주)(봉제의복), (주)태성산업(플라스틱부품제조), 삼덕통상(주)(신발제조), (주)대화연료펌프(자동차연료부품), (주)용인전자(전자부품), (주)매직마이크로(전자부품·영상장비), 부천공업(주)(전기공급·제어장치), (주)에스제이테크(플라스틱제품), (주)호산에이스(일반기계제조), (주)신원(봉제의복), (주)리빙아트(기타금속제조), (주)로만손(시계) 및 (주)TS정밀(반도체))

## ■ ‘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’ 개소(10.20)

-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‘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’가 10월 20일 개성에서 개소
  -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남한이 설립하는 북한법인으로 개성공단내 기업 설립의 승인 및 등록, 건설허가·준공검사, 토지이용권 등록, 시설 관리 등을 담당
- 한편, 한국토지공사는 10월 21일 개발사무소를 준공

## ■ 북한, 식량증산 위해 노는 땅 경작 장려

-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협동농장이 보유한 휴경지 등을 기관 및 기업소에 분배하여 이들이 직접 경작·생산하여 자체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시
- 관련 부처에는 세수증대를 위해 암거래상과 부업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징수 업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

## 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, 평양에서 무역상담회(10.21~25)

-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소속 해외동포사업가 164명이 북한의 초청으로 10월 21~25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상품의 수출 가능성 검토, 북한내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 타진, 북한 수출품 전시장 관람 등 상담활동 실시
- 북한은 해외동포에 대한 투자우대정책을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

### 〈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상이 설명한 우대정책〉

- 투자형식 : 100% 단독기업(외국인기업) 설립은 특구지대에서만 허용했으나, 해외동포기업에 한해서는 타 지역에도 허용
- 투자분야 : 광산개발권, 단독은행 설립도 가능
- 최저임금 : 30유로(38달러) ※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상 최저임금은 57.5달러
- 세금 및 기타비용도 동남아 국가 등에 비해 매우 유리
  - 기업소득세(법인세에 해당, 10~25%), 거래세(부가가치세에 해당, 1~15%), 영업세(2~10%),
  - 전기사용료(1,000kW당 53유로; 68달러), 용수사용료(1,000m³당 30유로; 38달러)

## ■ 대북 쌀차관 10만톤 육로수송 완료(10.27)

- ‘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’(7.13)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합의한 쌀 40만톤 중 국내산 쌀 10만톤의 육로수송이 10월 27일 완료(통일부)
- 이번 수송은 1995년 대북 쌀 지원이후 최초의 육로수송으로 경의·동해선 도로를 통해 개성 및 고성지역에 하역
  - 정부는 동·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내륙지역까지 수송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지원사실을 인지하는 계기로 평가

## ■ 외국 법률회사, 최초로 북한에 지사 설립

- 싱가포르 법률회사인 켈빈 치아파트너십(Kelvin Chia Partnership)이 외국기업 최초로 100% 지분을 보유한 지사를 북한 평양 시내에 설립
  - 북한은 8월 15일 영국과 합작 법률회사(‘헤이 켈브 & 어소시에이츠’)를 설립

## ■ 북한, 평양시내 시장 규제 조치 시행

- 북한은 급격한 시장 확대를 경계하고 무질서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통일거리종합시장 등 평양시내 시장에 규제조치 시행(10.31, 흑룡강신문)
  - 가격통제 : 최고가격의 제한을 통해 자율적인 가격인상 금지
  - 시장 밖에서의 거래 금지
  - 자동차 등 대형 수송수단을 통한 원거리 객지 판매 금지
  - 판매상품을 생활용품에 국한
- 한편, 시장 장려정책은 시장경제·자유경제 이행과 무관하며 ‘국가 인민들에게 상품을 제대로 생산,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’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(월간조국 11월호)

## ■ 남북간 상업용 선박운항에 국적선 운항 개시(11.1)

- 11월 1일부터 부산~홍남간 항로에 부산 소재 기업의 1,214톤급 국적선이 투입
  - 이전에는 쌀,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는 국적선이 투입되었으나 상업물자는 제3국적선만 운항하였으며, 동 선박은 함경남도 홍남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선적하여 부산, 동해 및 광양항 등에 매월 7회 운항할 예정

## ■ EU, 북한에 6.2백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 결정(11.4)

- 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국(ECHO)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수 및 하수처리 사업에 6.2백만 유로(7.9백만 달러)를 지원하기로 결정
  - EU는 ECHO 프로그램으로 2000년 이후 북한에 약 568백만 유로(731백만 달러)를 지원

## ■ 정부, 북한에 식량 및 비료 지원 결정(11.5, 11.9)

- 정부는 WFP(세계식량계획)를 통해 북한에 외국산 옥수수 10만톤 지원을 결정(11.5)
  - 옥수수 구입·수송 등 소요비용 24백만 달러(288억원)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
  - ※ 옥수수 지원 실적 : 2001년~2003년간 매년 10만톤
-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비료 10만톤 추가 지원을 결정(11.9)

- 비료 구입·수송 등 소요비용 39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
-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남포, 원산, 청진, 홍남, 해주항 등 5개 거점항에 전달
- ※ 비료 지원 실적 : 1999년 15.5만톤, 2000년 30만톤, 2001년 20만톤, 2002년 30만톤, 2003년 30만톤, 2004년 10월 20만톤

## ■ 정부, 용천재해 복구 및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(11.9)

- 정부는 용천재해 복구를 위한 자재·장비 지원에 15.7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
  - 자재·장비는 5.7~8.23 중 북한에 전달되었으며, 구매비용중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기금에서 지원
-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확인, 상봉 등 교류 경비와 주선단체 소요경비로 8.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

### 이산가족 경비 지원 현황

단위 : 억원

	2000	2001	2002	2003	2004.9	계
교류 경비	2.4	3.5	4.4	6.9	2.5	19.6
단체 지원	-	-	0.4	0.3	-	0.7
계	2.4	3.5	4.8	7.2	2.5	20.3

## ■ 정부, '훼미리마트' 개성공업지구 지점 설치 승인(11.9)

-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동에 (주)보광의 '훼미리마트' 편의점 개점을 위해 협력사업(자) 승인
  - 판매 상품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매일 2회 배송되며 근무인원은 남한 점장 1명과 북한 3명으로 구성(설립비용 1억 5천만원)
  - 북한과 협의를 통해 북한 근로자의 이용도 허용 추진
- ※ 훼미리마트는 2002년 11월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고 금강산온정각 휴게소와 직원숙소인 금강산벨리지에 금강산 1, 2호점을 운영중. 금강산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만 이용 가능

## ■ 북한, 협동농장의 외부노력동원 자제

- 북한의 협동농장들이 최근 모내기나 가을 수확기에 외부의 노동자, 사무원, 학생 노력동원 없이 자체 노력으로 해결(10.14, 조선신보)
- 종전에는 노동자, 학생 등의 노력동원이 아무 대가없이 이루어졌으나, 7·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외부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## ■ 정부, 북한산 위장 농수산물 반입 방지책 마련(11.11)

- 정부는 외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
- 위장반입 적발업체 : 반출입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
- 위장반입 빈발 품목 : 반입승인 기준 강화 및 한도물량(Quota) 조정

## ■ 북한, 1~9월중 대중 교역 40.5% 증가, 대일 교역 0.9% 감소

- 올해 1~9월중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88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0.5% 증가
- 대중 수출은 347백만 달러(81.1% 증가), 수입은 539백만 달러(22.8% 증가)
- 대일 교역액은 20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.9% 감소
- 대일 수출은 130백만 달러(1.6% 감소), 수입은 71백만 달러(전년동기 수준)
- 통일부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지고 광산물 등 1차산품 수출과 소비재·생필품 수입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

## ■ 현대아산, 금강산에서 관광사업 6주년 기념행사 개최(11.19)

-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4년 10월말까지 82만 2,201명이 관광
- 현대아산은 북한의 김정숙 휴양소를 임대하여 개·보수후 2005년 봄부터 관광객 숙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
- 장기적으로 원산을 거점으로 하여 금강산, 칠보산, 묘향산, 평양, 백두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사업도 추진할 계획

## ■ 정부, 개성공단내 응급의료시설 및 식당 설치 승인(11.19)

- 정부는 개성공단내 사단법인 YMCA그린닥터스의 '개성병원' 설치를 승인
  - 근무인원은 13명(의사 3, 간호사 6)으로 예정(투자금액 5억원)
- 정부는 아라코(주)의 개성공단내 식당 설치·운영 사업을 승인
  - 근무인원은 9명(지점장 1, 조리실장 1, 조리원 7)으로 북한 주민 채용도 고려(투자금액 8천만원)

## ■ 북한, 대중 수입관세 평균 13배 인상

- 북한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평균 13배 인상하였으며 건축자재의 경우 최고 130배 인상(11.19, 도쿄신문)
- 북한은 수출허가서의 유료 발급을 통해 사실상의 수출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출세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

## ■ 정부,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재개(11.24)

- 정부는 2003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사 및 학생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재개
  - 2004년 12월~2005년 2월중 관광 중고생과 인솔교사에 대해 관광경비 40억원을 지원
  - 재원 : 남북협력기금 30억원,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원
  - 지원대상 : 2만명(인솔교사·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은 전액, 일반학생은 65% 지원)
- 정부는 2002년 4~12월 교사·학생 관광경비의 70%, 이산가족 관광경비의 60%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으나,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동의를 받지 못해 중단

## ■ KEDO 집행이사회, 경수로 사업 중단 1년 연장(11.25)

-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 집행이사회는 경수로 사업 중단을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 추가 연장하기로 서면 결의

## ■ 정부,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협력사업(자) 승인(11.26)

- 11월 3일 설립된 지원협회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의 업무지원 협약(11.8)에 따라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(기금) 확보·지원, 입주업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
  - 북한법인인 관리위원회에 대한 남한의 직접 지원이 곤란하여 지원협회를 통해 지원



## ■ 북한 내각, 시장 확대 지시

- 북한 내각은 시장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내각 결정 '시장관리 운영규정 채택에 대하여'(2003.5.5)를 일선 도·시·군에 하달(11.27, 도쿄신문)
- 시장을 보다 장려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거

### 〈 주요 내용 〉

- 시장의 설치와 폐지는 상업부가 승인하고 구체적인 관리는 지방 도·시·군 인민 위원회가 담당
- 노동자가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폐점 시간을 배려
- 농산물을 포함하여 소비재 및 공산품 판매까지 확대(생산용 원부자재는 제외)
- 최고 한도 가격을 설정해 이 범위 내에서 임의로 매매가격 결정
- 각 점포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시장이용료를 국가에 납부

## ■ 한-싱가포르 FTA,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합의(11.29)

- 한국-싱가포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에서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(특혜관세)를 적용하기로 합의
-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은 원칙적으로 북한산(Made in DPRK)으로 표시되며, 식별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의 영문 표기를 병기 추진

## ■ 정부, 동해선 도로 임시 개통(12.1)

- 정부는 12월 1일 동해선 남측 구간(통일전망대~군사분계선, 4.2km)을 임시 개통하고 도로이용도 관광목적에서 교역·경협 및 인도적 물자·인원 수송으로 확대
- 동해선은 2002년 9월 착공되어 2004년 11월말 통일전망대~북한 온정리(2차선, 14.2km) 구간 공사가 완료

## ■ 남-북,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방식 합의(12.3)

- 한국전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배전선로 방식(22,900V)으로 분단 이후 최초로

-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에 15,000kW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합의
- ※ 배전선로는 전신주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철탑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보다 규모가 작은 전력 공급에 이용

## ■ 우리은행 개성공업지구 지점 개소(12.7)

- 우리은행의 개성공업지구 지점이 12월 7일 개소
  - 자본금은 5백만 달러로 지점장과 책임자 2명이 근무
  - 거래통화는 미달러화를 기본으로 하며, 입출금 및 환전은 직접 처리하나, 송금과 신용장 업무는 당분간 서울을 통해 처리
- ※ 우리은행의 북한 진출 경과
  - 2004. 9. 8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, 개성공단 진출은행으로 우리은행 선정
  - 2004.11.26 금융감독위원회, 우리은행 개성공업지구지점 신설 인가
  - 2004.11.30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, 영업소 설치 승인 수리

## ■ 북한, 형법 개정

- 북한은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(8장 161조 → 9장 303조,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)
  - 1950년 3월 제정 이후 1974년, 1987년, 1995년, 1999년에 이어 다섯 번째 개정
- 7·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·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체제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

## ■ 북한, 과학자에 이익 30%까지 성과금

- 북한은 7·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과학기술자에게 이익금의 30%까지 성과금을 지급
  - 성과금은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과 교원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에너지와 자재 및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기술혁신 성과를 거뒀을 때 지불
- 과학기술자에게 성과금 이외에 배려금(남한에서 보너스에 해당)도 지급
  - 매월 학사학위(남한의 석사학위) 소지자에게 25원, 박사에게 50원을 지불했으나, 7·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기존 학위자에게는 정례 배려금제를 폐지하고 학위취득후 첫달에 500원 한도에서 한차례 배려금을 지불

## ■ 정부, 개성공단 방문절차 간소화(12.24)

- 정부는 「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」를 개정
  - 방북승인처리기간 : 10일 → 5일
  -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 : 신원진술서 제출 생략
  - 수시방북승인자의 매 왕래시 북한방문신고 : 출입계획 제출로 같음
- 방문증명서 재발급, 기재사항 수정, 신고확인 날인 등은 통일부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도 가능(11.23 시행)

## ■ 북한, 2005년 남북관계 개선 강조(12.24)

-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6·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인 2005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
  - 남과 북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

## ■ 북한, 6년 연속 플러스 성장 시현

-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실적(1.8%)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9년 이후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(통일부)
  - 경제 성장을 주도한 부문은 농업과 석탄·전력 등 에너지 부문

## ■ 남-북,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(12.30)

- 남북 통신사업자인 KT와 조선체신회사는 제9차 통신협상(12.29~30, 개성)에서 통신공급에 관한 협상을 타결
  - 통신요금은 분당 미화 50센트 범위내에서 정하며, 통신망은 '개성공업지구-개성(전화국)-문산' 경로로 광케이블로 남북간 직접 연결